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일가 관련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일요일 늦은 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후 96.5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경제]

- Reuters: 2월 미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 YahooFinance: 연준, 높은 유가로 금리 동결 할 듯...내부 이견 깊어
- WSJ: 골드만삭스 “이란 사태 인플레이는 에너지에만 주로 여파”

[금융]

- Bloomberg: 각국 은행들, 오일 충격으로 인플레이 상승 압력 직면

[중동 위기]

- Bloomberg: 미 동맹국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동참에 신중 모드
- CNBC: 트럼프, 중국 방문 전에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 지원 압력

[오일]

- NYT: 미국 경제, 오일 의존도 줄어든다
- YahooFinance: 미국, “이란 유조선 호르무즈 항해 허용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FedEx, 시가총액 UPS를 추월

[미국 경제]

Reuters: US manufacturing output rises marginally in February 2월 미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 올 2월에 자동차 생산이 증가했지만 기계류 생산이 약세를 이룬 가운데 미 제조업 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연준이 오늘 월요일 발표했다.
- 1월에 제조업 생산이 0.8% 상향 조종된 이후에 2월도 0.2% 상승했다. 제조업은 미 경제의 10.1%를 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월에 0.6% 상승, 2월에 0.1% 상승을 예상했었다.
- 1년 치로 비교했을 경우 작년 2월보다 제조업 생산이 1.3% 늘어났다.

기사

YahooFinance: Oil price spike likely to keep rates on hold but deepen divisions among Fed officials this week

연준, 높은 유가로 금리 동결 할 듯...내부 이견 깊어

- 연준이 이번 주에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쇼크로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내부 견해차가 커질 듯하다. 물론 이번 주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 전 연준 캔자스 총재인 Esther George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 중단하면 좋겠다. 인플레이션의 경로와 다른 여러 요인들이 이미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는 “지금은 연준이 중립 금리를 어디쯤으로 보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 경제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 몇 주전 까지만 해도 연준은 현재 금리가 중립 금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중립 금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Powered by Polymarket

What will Crude Oil (CL) settle at in March?

\$516,058 Volume Ends on Mar 31, 2026



기사

WSJ: Iran War Inflation Shock Is Mostly Limited to Energy, Goldman Says 골드만삭스 “이란 사태 인플레는 에너지에만 주로 여파”

- 연준은 이번주 정례 회의에서 중동 위기에 따른 인플레 쇼크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이번 중동 위기 공급 충격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유가 상승이 내년에 전 세계 GDP를 0.3% 낮추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약 0.5%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이 은행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혼란이 석유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화학제품과 금속 현물 가격은 인플레에 0.1%포인트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기사

[금융]

Bloomberg: Central Banks Confront Fresh Inflation Threat as War Jolts 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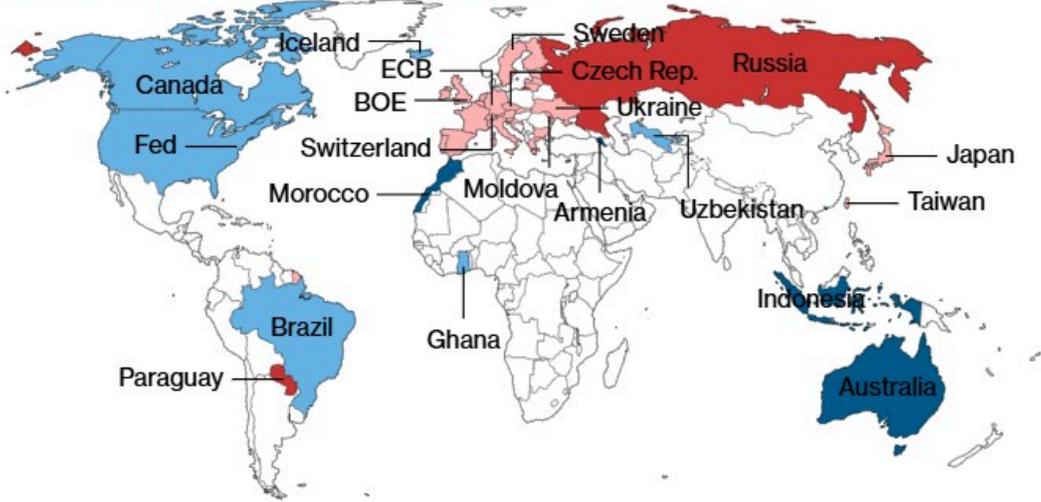
각국 은행들, 오일 충격으로 인플레 상승 압력 직면

- 미국과 이란 갈등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 은행들은 이에 대한 경제적인 악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연준, 유럽 은행, 일본은행 등 각각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동결할 예정이다.
- 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은 중동 사태가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거나, 경제 성장을 저해하거나, 통화 가치를 흔들 경우 다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새로운 인플레이 충격 가능성이 이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우려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Central Bank Rate Decisions This Week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Note: Mapped data show rate decision schedules for distinct central banks
Source: Bloomberg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US Allies Wary of Joining Trump's Strait of Hormuz Mission

미 동맹국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동참에 신중 모드

- 미국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 요청을 일축하며, 이란 전쟁에 휘말리는 것에 우려를 보인다.
-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들은 전쟁을 확대하고 싶지 않으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새로운 임무(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지원 협조)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영국과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일부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입장을 보였지만, 많은 나라들은 개입에 회의적이거나 반대 입장이다.

기사

CNBC: Trump signals possible delay to Beijing summit as U.S. pressures China to help reopen Strait of Hormuz

트럼프, 중국 방문 전에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 지원 압력

-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경에서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도록 중국이 동

- 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측 모두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자의 입장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균형 유지를 앞세우고 있다.
- 한편 중국은 트럼프가 판단한 것보다 호르무즈 해협 혼란에 영향을 덜 받고 있다.

기사

[오일]

NYT: America Depends Less on Oil Than Ever

미국 경제, 오일 의존도 줄어든다

- 중동 위기로 페르시아만 상업 활동이 사실상 멈추고, 전 세계 유가가 50%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석유 공급 혼란으로 이어져, 올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보다 영향이 훨씬 줄고 있다.
-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경제 활동 단위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 경제가 예전보다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진 것이다.
- 미국 경제는 이제 제조업보다 의료, 소매, 엔터테인먼트 같은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한다.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약 2천1백00만 개에 불과하지만, 민간 서비스업에는 1억 1천4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Share of national disposable income spent on gasoline and other energy goods



Does not include piped natural gas. Source: Bureau Economic Analysis. Lydia DePillis/The New York Times

기사

YahooFinance: U.S. is allowing Iranian oil tankers through Strait of Hormuz, says Bessent

미국, “이란 유조선 호르무즈 항해 허용한다”

- 연방 재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중국 대표단과의 무역 회담을 위해 프랑스에 있는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 유가 안정과 공급망을 위해 이란 오일이 다른 국가들에 공급하는 상황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동안 페르시아만에서 이슬람이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은 크게 줄어들었고 전쟁 발발 후 유가도 급등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edEx Overtakes UPS as the New King of Delivery FedEx, 시가총액 UPS를 추월

- UPS가 여전히 더 많은 소포를 배송하고 있지만, FedEx는 비용 절감 노력이 월가에서 높게 평가받으면서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
- 역사상 FedEx 주가 총액이 UPS를 앞선 것이다. 페덱스 주가는 지난 2년간 거의 40% 올랐고, UPS 주가는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다. 오늘 월요일 FedEx 시가 총액은 849억 달러로, 경쟁사보다 약 4천4백만 달러 많았다.
- 이는 UPS가 1999년 상장한 이후 FedEx가 처음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 두 오랜 경쟁사는 팬데믹 기간 네트워크를 확장한 뒤 수천 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운영 규모를 축소해 왔다.
- FedEx는 익스프레스와 일반 배송 부문을 통합하고, 화물 운송 부문을 분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며,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